

11. 신 창 면

[101] 가리울 마을

나는 신창면 가내리 1구에서 "개를"이라고 불리우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 비록 시내는 없지만 몇백년 묵어 반쪽은 부러지고 반만 남은 정자나무를 중심으로 집들이 있다.

옛날에는 우리동네가 지금보다도 더 완전히 산으로 덮여서 산에 오르지 않고는 우리동네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야말로 물도 없는 완전 산촌이었으나 보다.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한다. 행길이 생겨 버스도 들어올 정도로 길이 넓어지고 전기도 들어오고 해서 많이 변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산으로 인해 전부 가려졌다고 하여 "가리울"이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개를"이라고 부른다. 이제는 산들도 동네가 발전하면 할수록 멀어져 간다. 금면봉엔 앞산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 버렸다. 상수도를 놓는다는 등 삼교천 물이 들어온다는 등 하여 산들이 모두 엉망이다. 매우 섭섭다하. "가리울"이라는 이름도 좋지만 풍경 좋고 아름다운 우리 동네가 자꾸만 변하여 가는 것이 어쩐지 섭섭하기도 하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처음의 "가리울"이라는 동네를 상상하면 맑은 공기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처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가리울..... 문명이 들어오지 않았던 가리울과 이제는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발전한 가리울 이 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아름다운 가리울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102] 당집고양이

신창면 신곡리에는 커다랄고 아주 높은 큰 산이 있다. 어쩌다가 늦게서야 집에 귀가 할 때면 그 산앞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아주 무섭다.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이 늦게 끝나는 날은 어머니께서 버스 종점까지 마중을 나오신다. 내가 아마 중3때라 생각된다. 고입시를 위해 야간 수업까지 하고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갑자기 산에서 고양이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어떻게나 무섭든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도 모르고 가방까지 팽개치고 엉엉 울고 말았다. 마침 어머니께서 나를 마중 나오시던 중 한길가에서 울고 있는 나를 어머니께서 일으키시며 말씀하셨다. 옛날에 이산에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젊은 여무당이 이곳에서 신을 모시는 신당에서 신께 빌고 있는데 악랄한 산적들이 이 젊은 여자무당에게 부정한 행동을 해서 이 무당이 반항을 하다가 죽었고 마침 그 젊은 무당이 데리고 살던 고양이가 자기 주인이 남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보기가 하두 안타까워서였는지 그 나쁜놈들을 하귀고 물고 하면서 눈을 다치게 하여 그놈들을 물리쳤다 한다. 그러나 그 고양이도 마침내 도둑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는 날은 이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한다. 고양이라는 동물도 자기를 길러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데.....

[103] 미 륵 존 준

신차면 실옥리 두루봉산 기슭에 그리 크지 않은 미륵 존준이라 불리우는 돌이 있다. 여름철에 장마질 때 우리 동네에 고분다리라는 곳 옆동네로 연결이 되는 다리에물이 넘쳐 못 건너 다니게 되자 고분다리에 있던 돌을 이쪽다리에 갖다놓고 밟고 다녔다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스럽게도 갓 태어나는 아기들과 청년들이 죽어갔다 한다. 어쩔줄 몰라하던 양쪽 동민들이 의논 끝에 그 돌을 꺼내어 동네에서 좀 떨어진 산밑에 놓았다.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이상없이 동네는 안정을 되찾았다 하난. 그 며칠이 지난 뒤 양쪽 동네 사람들이 "그 돌을 인적이 없는 고세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 같다"하여 동네절로 옮겨 놓았다고 하난. 그런데 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돌을 원자리에 갖다 놓고 지성을 들이나 차차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아무래도 괴이히 여겨 보호할 수 없는 집을 짓고나니 옆에서는 맑은 물이 솟기 시작하더라. 지금은 여자가 애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또렷하다.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뒤 계속하여 기도하고 지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한다. 이런일에 계기가 되어 조금이나마 동

네일에 신경 쓸 수 있고 우리 동네가 선택된 자리라는 자부심이 생긴다.

[104] 울 바 위

이조 중엽때의 이야기다. 함경도에 한총신이 살았다 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서 왕의 성은을 독차지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시가하는 자가 많아져 나중에는 역적으로 몰리어서 결국 그 총신은 사랑을 받고 가족들은 집을 떠나 현재 창암리라는 마을에 자리잡고 살았다. 그런데 하루는 그 총신을 역적으로 몰리어 죽게 한 자가 나중에는 후한이 있을지 모르니 가족을 모두 죽여야 한다며 칼잡이를 시켜 창암리로 보냈다. 그때 창암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족들 중 막내와 큰 딸이 친척집에 가 있었다. 다음날 늦게까지 아무도 안 일어나자 옆집에서 이상히 여겨 찾아왔으나 가족 8명이 다 죽어 있었다. 그 사실을 안 큰딸과 막내는 너무 슬픔에 병이 들어 죽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이 묻혀 있는 옆에 묻어 주었다. 7년 후 큰 딸은 남장을 하고 가족을 죽인자의 식솔로 들어가 가족의 원수를 갚은 후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묻혀 있는 앞에서 한없이 울었다. 동네사람들이 걱정하여 한참만에 뒷산에 올라가 보니 큰 딸은 간데없고 무덤앞에 전에 없던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어 동네사람들은 이 바위가 큰 딸이 울다가 변한 녀이라 하며 이름을 울바위라 불렀다 한다.

그후 원한이 있는 자는 울바위 앞에 와서 커다란 결심을 하고 원수를 갚았다 하며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조시대의 정치상과 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고 바위가 된 큰 딸의 녀를 다시금 생각한다.

[105] 정자 나뭇거리

신창면 신달리란 마을은 인심좋고 물맑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이곳에 강씨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흠어머님을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강씨는 비록 글도 읽을 줄 모르지만 효성이 지극하였고 착하기가 비길데 없었다. 나이는 서른이 넘었지만 아직 결혼을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밥을 하고 빨래를 빨았다. 어느날 갑자기 강씨가 나물르 하러 산에 갔다. 어느덧 해는 저물었다. 그런데 어디서 여인네 울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강씨는 나무사이를 헤치고 울음소리를 찾아갔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네가 어느 무덤 앞에 다소곳이 앉아 울고 있었다. 이유를 묻고자 강씨는 그 여인의 앞으로 다가갔다. "저, 왜이리 혼자 울고 계신지요?" 고개를 살며시든 여인네의 얼굴! 강씨는 순간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다. "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면...." "저어- 얼마전에 저의 어머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곳 없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라곤 단 한분밖에 안 계시던 어머니였는데..... 흑흑" 강씨는 겉으로는 안됐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속마음은 '옳지 잘됐다.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야지'라고 생각했다. 저도 흠어머님만 모시고사는데 의지할 곳이 없는데 저와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라고 간청했다. 여인은 강씨를 잠시 쳐다보다가는 그의 얼굴에서 믿음을 찾았는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리하여 강씨와 여인은 함께 살게 되었다. 여인은 강씨와 함께 어머님을 정성껏 봉양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집안의 형편이 점차 피게 되었고 아들까지 보게 되었다. 그후 세월이 흘러 부지런히 일한 그들은 이제는 기와집도 짓고 밭과 논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는 어찌된 일인지 비가 오지를 않았다.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이 빌고 또 빌었지만 비는커녕 햇빛만 점점 더 내리쬐어 밭의 콩이랑 고추랑 모두 병이 들고 말라가고 있었으며 논은 모두 째째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도리가 없다고 믿고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강씨와 여인네의 집 물독에도 물이 바닥났다. 그동안 강씨와 여인의 어머님께서 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물을 먹는 것을 억제하였다. 여인은 어떻게 하면 물을 구할 수 있을까 하여 아침부터 산속의 조그마한 물줄기라도 찾기 위해 산속을 정시없이 해냈다. 여인도 물먹는 것을 잊은지가 오래되었다. 이제는 발 옮길 힘도 없고 갈증만 더해갔다.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아냐. 힘을 내야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며 조그마한 물줄기라도 찾기 위해 억지로 발을 옮기며 점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여인은 너무 힘이 들어 마침내 기절을 하게 되었다. 어렴풋이 정신이 들 때 그 여인의 옆을 지나가는 노인의 말이 "이 동네 앞에 나무를 심으면 물이 많이 나오련만" 하는 것이다. 여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

인이 쓰러졌던 옆에는 아홉 그루의 묘목이 있었다. 여인은 곡장 마을로 내려가 묘목을 심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말라죽을줄 알았던 나무가 무럭무럭 자랐으며 말랐던 샘에서 다시 물이 솟기 시작했다. 그후 정자나무 밑에서도 무럭 솟아 신달리 마을은 농사도 잘 짓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 정자 나뭇거리" 라 부르게 되었고 1년에 한번씩 여인을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나는 이 여인이 부모님과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 고개가 숙여졌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 산이 푸르러야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106] 천어물 고개

우리 마을은 신창면 남성리 2구다. 2구에서도 여러 갈래로 지명이 있는데 내가 사는 곳은 천어물이다. 천어물에 대한 전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조말에 있었던 이야기다. 나라에는 걱정이 없어 백성들은 편안히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지독한 가뭄이 들었다. 편하게 지냈던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것이다.

온 백성들은 모두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우제를 지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살 수 없다고 하나 돌씩 이 마을을 떠나 갔다. 그 다음해도 지난해에 못지않게 가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 이 마을은 버림받은 마을이야" 지난해에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도 떠나갔다. 어려움속에서도 정들었던 고향은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몹시 무더운 어느 여름날 어느 선비가 이곳을 지나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았으나 없었다. 목이 타들어가고 그늘진 곳은 그림자조차 없고 마을을 조금 지나다보니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산이 나왔다. 선비는 이상히 여겨져서 궁금증을 풀고 싶었다. 가뭄이 심해져 다른 마을 다른 곳은 다 말라가고 있는데 이곳만은 나무가 우거져 있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온몸을 적셨던 땀은 모두 사라지고 신선한 바람은 옷깃을 스쳐 갔다. 무더운 여름날인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극곳에서 쉬면서 나뭇가지를 갖고 땅을 파헤쳤다. 물이 조금씩 나와서 동네사람들을 부러다가 이곳을 파니 물구멍이 천여개나 솟았다. 그 물로 인해 가뭄은 해소되었고 이웃마을까지 가뭄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비가 하도 고마워서 선비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해줄까? 궁리 끝에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나라에서도 상을 주려고 선비를 찾았으나 그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천여개의 물구멍도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몇 개 남아 있지 않다. 천어물이었던 것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지금의 천어물로 변한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쉬어 물을 마시고 고개를 넘었다 한다. 어느 마을이든지 같은 가뭄이 들었지만 이 마을은 더욱 심했다. 그렇지만 고향을 떠난 사람도 많지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극복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피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슬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리라.

[107] 칠 성 바 위

산기슭 어느 마을에 가난한 아내와 남편이 살고 있었다. 부부는 결혼한 지가 몇해가 거듭 되었지만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없었다. 그래서 농사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근심에 찬 얼굴로 한숨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둘 사이에는 귀중한 아들이 태어났다. 돌도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기는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큰 병에 걸리고 말았다. 부부는 어찌할 도리없이 최선을 다하여 돌보았지만 그 병은 더욱 악화만 되어 갔다. 그들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어느날 그 아내가 자그마한 푼돈을 마련하려고 문밖을 나서는 참이었다. 그때 마침 문 밖에선 점잖으신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였다. 이 가난한 농부의아내는 팔러가던 곡식을 스님에게 주니 스님은 지금 댁에 귀한 아드님께서서 무서운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지 않는냐고 물었다. 그 아내는 깜짝 노란 표정을 본 그는 그 아내에게 매일같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라고했다. 그 아내는 스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셨냐고 여쭙려 했지만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불공을 드리러 다닌지 몇 달후 부부가 농사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방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방안의 아이는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 것 같았다. 그때부터는 부부

가 함께 절을 가게 되었고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더욱더 열심히 다니었다. 드디어 백일째 되던날도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발길을 절로 향했다. 산 비탈진 언덕에 오를 때였다. 남편이 갑자기 영양실조로 인해서 쓰러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약도 없고 해서 몸이 쇠약해진채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래서 그 아내는 그 길로 남편의 장사를 치루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아기에게서 평범한 애들과는 달리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때의 스님이 아기는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관심을 갖고 키워왔다. 그 아기는 이제 자라 13세가 되었다. 그는 자라면서 총명스러움과 효성스러운 마음이 남과 달리 지극했다. 하지만 그에겐 다리 한쪽이 불구가 되는 비극에 빠지고 말았다.

그후 어머니까지도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어 어머니께서 산삼을 잡수시면 완쾌 될 것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드릴때였다. 그의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효성스러움에 흐느끼면서 한사코 말리었지만 아들의 변함없는 마음에는 어쩔수가 없었다. 아들이 방문을 나서려 하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옛날에 스님이 들려준 애기와 아들의 한발이 불구가 된 이유 백일동안을 못채운 까닭이라 하면서 눈물로써 이부자리를 적시었다. 어머니의 말씀을 다 들은후 그는 산삼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갔다. 한쪽 다리를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몇배의 어려움이 따랐지만 참고 계속 올랐다. 한참이나 오르다 보니 산삼같은 것이 눈에 어른거리 그곳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과 벼락이 몰아치면서 나무들이 무너지고 앞은 캄캄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후 얼마가 지났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산삼은 간데없고 그는 큰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니 처음보는 곳이었고 그 주위에는 몇 개의 바위들이 여기저기에 있었는데 그 바위의 위치가 바로 북두칠성과 같이 생겼었다.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 일어나 걸으니 완쾌한 몸이 되었다. 기뻐 어쩔줄을 몰랐다. 뿐만 아니라 바위 밑에는 산삼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를 찾아 산아래로 달려 왔다. 어머니를 간호했다. 어머니도 완쾌됐고 그후 훌륭한 장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 큰 인물이 되었다고 전한다.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옛날 그 어느때 보다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 소년의 효성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본받아 인, 의, 지, 예, 신이 모두 갖추어진 한국의 여성이 되었으면 한다.

[108] 학 성 산

신창 읍내리에 있는 학성산에 대한 전설이다. 읍내리 마을 뒷산에 자리잡고 있는 학성산은 비교적 인기가 좋다. 국민학생, 중학생 할것없이 놀이터이고 이른 아침엔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러 그곳에 올라가곤 한다. 전설은 이렇다. 어머님을 여의고 아버지와 새어머님 그리고 새 어머님이 데리고 들어온 오빠가 있다. 전부 네 식구였다. 그러나 아버님과 의 생활도 며칠 못 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새어머님은 자기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구박을 했지만 오빠와 동생간의 사이는 참 좋았다. 동생도 오빠를 잘따랐고 오빠도 동생한테 친동생 못지 않게 정성을 The아 주었다. 그러나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친딸이 아닌 딸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두사람을 불러놓고 "지금부터 너희들끼리 경주를 해서 지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해라. 지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하셨다. 오빠는 30cm 가량되는 높은 구두를 신고서 서울에 걸어서 갔다온다는 것도어려운 임이지만 여자의 몸으로 돌을 날라 성을 쌓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오빠는 자기가 성을 쌓는다고 하였다. 동생이 어려울까봐서였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시험이 시작되었다. 오빠도 길을 떠나고 동생 역시 성을 쌓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을까 열심히 성을 쌓아서 문을 쌓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 어머니는 생각하셨다. 가만히 보니 자기 아들이 질것만 같았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밥을 한술해서 반찬과 함께 차려놓고 딸보고 와서 먹으라고 하였다. 딸은 거역을 했다. 하지만 여지껏 시장끼를 참아가며 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배가 몹시 고팠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을 한술 다 먹고나니 어머니가 이르시길 "애야 이왕 먹기 시작한 거니까 이것마저 먹어라" 하셨다. 커다란 술에다 밥을 했기 때문에 누렁지가 많이 있었다. 안먹겠다고 해도 어머니는 자꾸 누렁지를 먹으라고 했다. 딱딱한 누렁지를 먹는 것도 시간이 펍 걸렸다. 누렁질 다 먹고 성문을 쌓기위해 성에 갔을땐 오빠가 벌써와 있었다. 둘이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가 부동켜 안고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오빠는 여동생의 뒤를 이어 자살을 했다. 오빠는 여동생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자기도 함께 자살한 것이다. 어머니

는 그 일을 뉘우치고 동생과 오빠 그리고 쓰던 물건들을 바위속에다 묻어 주었다. 며칠 있다가 그곳에서 학이 두 마리 날아갔다 한다. 그래서 그곳을 학이 날아간 곳이라 하여 학성산이라 불리운다. 사람들이 바위를 떠밀어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하면 하늘에서 천둥번개 소리가 나서 건드리지 못한다 한다. 서글픈 이야기다. 나도 학처럼 고고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

[109] 학성산의 당집

신창면 읍내리에 자리잡고 있는 학성산의 꼭대기에는 조그마한 당집이 있다. 거기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민간들이 믿고 있는 영혼의 신의 사진들도 붙여져 있다. 왜, 그 산위에 당집을 짓고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옛날에 산에 성을 쌓고 싸움을 하였는데 위대한 명장군들의 영혼이 한이 맺혀 다시 태어나 다시 그 산위에 생을 누리고 있다고하며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을을 내려다 보며 마을을 도운다고 믿고 그 성위에 조그마한 당집을 짓고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지내고 또한 기우제도 지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듣고 난 후부터는 그곳을 지날 때면 웬지 모르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당집 앞에 서면 웬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의 생활에 대해 반성도 하고 앞일을 위해 두손모아 빌어보기도 한다.